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國號)를 없이하며, 우리의 정권(政權)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수탈하였다. 경제의 생명인 산림·천택·철도·광산·어장……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 일체의 생산기능을 칼로 베며 도끼로 끊고, 토지세(土地稅)·가옥세(家屋稅)·인구세(人口稅)·가축세(家畜稅)·백일세(百一稅)·지방세(地方稅)·주초세(酒草稅)·비료세(肥料稅)·종자세(種子稅)·영업세(營業稅)·청결세(清潔稅)·소득세(所得稅)……기타 각종 잡세가 축일(逐日) 증가하여 혈액은 있는 대로 다 빨아가고, 여간 상업가들은 일본의 제조품을 조선인에게 매개하는 중간인이 되어 차차 자본 집중의 원칙하에서 멸망할 뿐이요, 대다수 인민 곧 일반 농민들은 피땀을 흘리어 토지를 갈아, 그 종년(終年) 소득으로 일신과 처자의 호구(糊口)거리도 남기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 먹으려는 일본 강도에게 진공(進供)하여 그 살을 찌워 주는 영세(永世)의 우마(牛馬)가 될 뿐이요, 나중에는 그 우마의 생활도 못하게 일본 이민(移民)의 수입이 연년 고도의 속률(速率)로 증가하여 ‘딸각발이’ 등쌀에 우리 민족은 발디딜 땅이 없어 산으로 물로 서간도(西間島)로 북간도(北間島)로 시베리아의 황야(荒野)로 몰리어 가 아귀(餓鬼)부터 유귀(流鬼)가 될 뿐이다.

강도 일본이 헌병정치(憲兵政治)·경찰정치(警察政治)를 여행(勵行)하여 우리 민족이 존보의 행동도 임의로 못하고, 언론(言論)·출판(出版)·결사(結社)·집회(集會)의 일체 자유가 없어, 고통의 분한(憤恨)이 있으면 병여리의 가슴이나 만질 뿐이요, 행복과 자유의 세계에는 눈뜬 소경이 되고, 자녀가 나면 “일어를 국어라, 일문을 국문이라” 하는 노예 양성소 — 학교로 보내고, 조선 사람으로 혹 조선사(朝鮮史)를 읽게 된다면 “단군(檀君)을 무(誣)하여 소전명준(素戔鳴尊)의 형제”라 하며 “삼한시대 한강 이남을 일본 영지”라 한 일본놈들의 적은 대로 읽게 되며, 신문이나 잡지를 본다 하면 강도정치를 찬미하는 반일본화(半日本化)한 노예적 문자뿐이며, 똑똑한 자제가 난다 하면 환경의 압박에서 염세절망(厭世絶望)의 타락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모사건’의 명칭하에 감옥에 구류되어, 주리(周牢)·가쇄(枷鎖)·단근질·채찍질·전기질, 바늘로 손톱 밑과 발톱 밑을 찌르는, 수족을 달아매는, 콧구멍에 물붓는, 생식기에 심지를 박는 모든 악형, 곧 야만 전제국의 형률사전(刑律辭典)에도 없는 갖은 악형을 다 당하고

죽거나, 요행히 살아서 옥문에 나온대야 종신 불구의 폐질자(廢疾者)가 될 뿐이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발명·창작의 본능은 생활의 곤란에서 단절하며, 진취·활발의 기상은 경우의 압박에서 소멸되어 ‘찍도 찍도’ 못하게 각 방면의 속박(束縛)·편타(鞭答)·구박(驅迫)·압제(壓制)를 받아, 환해(環海) 삼천리가 일개 대감옥이 되어, 우리 민족은 아주 인류의 자각을 잃을 뿐 아니라, 곧 자동적 본능까지 잃어 노예부터 기계가 되어 강도 수중의 사용품이 되고 말 뿐이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생명을 초개(草芥)로 보아 을사(乙巳) 이후 13도의 의병(義兵) 나던 각 지방에서 일본군대의 행한 폭행도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 즉 최근 3·1운동 이후 수원(水原)·선천(宣川)…… 등의 국내 각지부터 북간도·서간도·노령 연해주 각처까지 도처에 거민(居民)을 도륙(屠戮)한다. 촌락을 소화(燒火)한다, 재산을 약탈한다, 부녀를 오욕(汚辱)한다, 목을 끊는다, 산 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 혹 일신을 두 동가리·세 동가리로 내어 죽인다, 아동을 악형한다, 부녀의 생식기를 파괴한다 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의 ‘산 송장’을 만들려 하는도다.

이상의 사실에 의거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정치 곧 이족통치(異族統治)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殺伐)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2

내정독립(內政獨立)이나 참정권(參政權)이나 자치(自治)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이냐?

너희들이 ‘동양평화(東洋平和)’ ‘한국독립보전(韓國獨立保全)’ 등을 담보한 맹약(盟約)이 먹(墨)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조선인민 생명재산 자유보호’ ‘조선인민 행복증진’ 등을 신명(申明)한 선언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이천만의 생명이 지옥에 빠지던 실재를 못 보느냐? 3·1운동 이후에 강도 일본이 또 우리의 독립운동을 완화시키려고 송병준(宋秉峻)·민원식(閔元植) 등 1, 2 매국노를 시켜 이 따위 광론(狂論)을 부름이니, 이에 부화(附和)하는 자가 맹인이 아니면 어찌 간적(奸賊)이 아니냐?

설혹 강도 일본이 과연 관대한 도량이 있어 개연(慨然)히 이들의 요구를

허락한다 하자. 소위 내정 독립을 찾고 각종 이권을 찾지 못하면 조선민족의 일반의 아귀(餓鬼)가 될 뿐이 아니냐? 참정권을 획득한다 하자. 자국의 무산계급의 혈액까지 착취하는 자본주의 강도국의 식민지 인민이 되어 몇개 노예 대의사(代議士)의 선출로 어찌 아사(餓死)의 화를 구하겠느냐? 자치(自治)를 얻는다 하자. 그 하종(何種)의 자치임을 물문(勿問)하고 일본이 그 강도적 침략주의의 초패(招牌)인 ‘제국(帝國)’이란 명칭이 존재한 이상에는, 그 부속하에 있는 조선인민이 어찌 구구한 자치의 허명(虛名)으로써 민족적 생존을 유지하겠느냐?

설혹 강도 일본이 돌연히 불보살(佛菩薩)이 되어 일조에 총독부(總督府)를 철폐하고 각종 이권을 다 우리에게 환부(還付)하며, 내정 외교를 다 우리의 부유에 맡기고 일본의 군대와 경찰을 일시에 철환하며, 일본의 이주민을 일시에 소환하고 다만 허명의 종주권(宗主權)만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일 과거의 기억이 전멸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일본을 종주국으로 봉대(奉戴)한다 함이 ‘치욕(恥辱)’이란 명사를 아는 인류로는 못할지니라.

일본 강도 정치하에서 문화운동(文化運動)을 부르는 자가 누구이냐?

문화는 산업과 문물의 발달한 총적(總積)을 가리키는 명사니, 경제 약탈의 제도하에서 생존권이 박탈된 민족은 그 종족의 보전도 의문이거든, 하물며 문화 발전의 능력이 있으랴? 쇠망한 인도족·유태족도 문화가 있다 하지만, 일은 금전의 힘으로 그 조선(祖先)의 종교적 유업(遺業)을 계속함이며, 일은 그 토지의 넓음과 인구의 많음으로 상고의 자유 발달한 여택(餘澤)을 보수(保守)함이니, 어디 문맹(蚊虻)같이 시랑(豺狼)같이 인혈(人血)을 빨다가 골수까지 깨무는 강도 일본의 입에 물린 조선 같은 데서 문화를 발전 혹 보수한 전례가 있더냐? 검열(檢閱)·압수(押收) 모든 압박 중에 몇개 신문·잡지를 가지고 ‘문화운동(文化運動)’의 목탁(木鐸)으로 자명(自鳴)하며,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만한 언론(言論)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 발전의 과정으로 본다 하면, 그 문화 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

이상의 이유에 의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과 타협하려는 자(內政獨立[내정독립]·自治[자치]·參政權[참정권] 등 논자)나 강도 정치하에서 기생(寄生)하려는 주의(主義)를 가진 자(文化運動者[문화운동자])나 다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강도 일본의 구축(驅逐)을 주장하는 가운데 또 여좌(如左)한 논자들이 있다.

제일은 외교론(外交論)이니, 이조 5백년 문약정치(文弱政治)가 ‘외교(外交)’로써 호국(護國)의 장책(長策)을 삼아 더욱 그 말세에 우심하여, 갑신(甲申) 이래 유신당(維新黨)·수구당(守舊黨)의 성쇠가 거의 외원의 유무에서 판결되며, 위정자(爲政者)의 정책은 오직 갑국을 인(引)하여 을국을 제(制)함에 불과하였고, 그 의뢰의 습성이 일반 정치사회에 전염되어 즉 갑오(甲午)·갑진(甲辰) 양 전역(戰役)에 일본이 수십만의 생명과 수억만의 재산을 희생하여 청(淸)·노(露) 양국을 물리고, 조선에 대하여 강도적 침략주의를 관철하려 하는데 우리 조선의 “조국을 사랑한다. 민족을 건지려 한다” 하는 이들은 일검일탄(一劍一彈)으로 혼용탐포(昏庸貪暴)한 관리나 국적(國賊)에게 던지지 못하고, 공함(公函)이나 열국공관에 던지며, 장서(長書)나 일본정부에 보내어 국세의 고약(孤弱)을 애소(哀訴)하여 국가 존망·민족 사활의 대문제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처분으로 결정하기만 기다리었도다. 그래서 ‘을사조약(乙巳條約)’ ‘경술합병(庚戌合併)’ — 곧

‘조선(朝鮮)’이란 이름이 생긴 뒤 몇천년 만의 처음 당하던 치욕에 조선 민족의 분노적 표시가 겨우 하얼빈(哈爾濱)의 총, 종현(鐘峴)의 칼, 산림유생의 의병(義兵)이 되고 말았다.

아! 과거 수십년 역사야말로 용자(勇者)로 보면 타매(唾罵)할 역사가 될뿐이며, 인자(仁者)로 보면 상심할 역사가 될 뿐이다. 그리고도 국망(國亡)이후 해외로 나가는 모모 지사들의 사상이 무엇보다도 먼저 ‘외교(外交)’가 그 제일장 제일조가 되며, 국내 인민의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방법도 ‘미래’의 일미전쟁(日美戰爭)·일로전쟁(日露戰爭) 등 기회가 거의 천편일률의 문장이었고, 최근 3·1운동에 일반 인사의 ‘평화회의(平和會議)·국제연맹(國際聯盟)’에 대한 과신(過信)의 선전이 도리어 2천만 민중의 분용전진(奮勇前進)의 의기를 타소(打消)하는 매개가 될 뿐이었도다.

제이는 준비론이니, 을사조약의 당시에 열국 공관에 빗발 듣듯 하던 종이 쪽으로 넘어가는 국권(國權)을 붙잡지 못하며, 정미년(丁未年)의 해아밀사(海牙密使)도 독립 회복의 복음이 안고 오지 못하매, 이에 차차 외교에 대하여 의문이 되고 전쟁 아니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생기었다. 그러나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이 무엇으로써 전쟁하겠느냐? 산림유생들은 춘추대의(春秋大義)에 성패를 불계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아관대의(義冠大衣)로 지휘의 대장이 되며, 사냥 포수의 화승대(火繩隊)를 몰아가지고 조·일전쟁의 전투선에 나섰지만 신문쪽이나 본 이들 — 곧 시세를 짐작한다는 이들은 그리할 용기

가 아니 난다. 이에 “금일 금시로 곧 일본과 전쟁한다는 것은 망발이다. 충도 장만하고 돈도 장만하고 대포도 장만하고 장관이나 사졸감까지라도 다 장만한 뒤에야 일본과 전쟁한다” 함이니, 이것이 이른바 준비론 곧 독립전쟁을 준비하자 함이다. 외세의 침입이 더할수록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자꾸 감각되어, 그 준비론의 범위가 전쟁 이외까지 확장되어 교육도 진흥해야겠다. 상공업도 발전해야겠다, 기타 무엇무엇 일체가 모두 준비론의 부분이 되었었다. 경술 이후 각 지사(志士)들이 혹 서·북간도의 삼림(森林)을 더듬으며, 혹 시베리아의 찬바람에 배부르며, 혹 남·북경으로 돌아다니며, 혹 미주(美洲)나 하와이로 돌아가며, 혹 경향(京鄕)에 출몰하여 십여성상 내외 각지에서 목이 터질 만치 준비! 준비!를 불렀지만, 그 소득이 몇개 불 완전한 학교와 실력 없는 회(會)뿐이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성력(誠力)의 부족이 아니라 실은 그 주장의 착오이다. 강도 일본이 정치·경제 양 방면으로 구박을 주어 경제가 날로 곤란하고 생산기관이 전부 박탈되어 의식의 방책도 단절되는 때에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에 발전하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의 100분의 1의 비교라도 되게 할 수 있느냐? 실로 일장의 잠꼬대가 될 뿐이로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迷夢)을 버리고 민중(民衆) 직접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4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구축할지며, 강도 일본의 구축하자면 오직 혁명(革命)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구축할 방법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혁명에 종사하려면 어느 방면부터 착수하겠느냐?

구시대의 혁명으로 말하면, 인민(人民)은 국가(國家)의 노예가 되고 그 이상에 인민을 지배하는 상전 곧 특수세력이 있어 그 소위 혁명이란 것은 특수세력의 명칭을 변경함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곧 ‘을’의 특수세력으로 ‘갑’의 특수세력을 변경함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인민은 혁명에 대하여 다만 갑·을 양 세력 곧 신·구 양 상전의 숙인(孰仁)·숙포(孰暴)·숙선(孰善)·숙악(孰惡)을 보아 그 향배를 정할 뿐이요, 직접의 관계가 없었다. 그리하여 주기군이조기민(誅其君而弔其民)이 혁명의 유일 종지(宗旨)가 되고 ‘단사호장이영왕사(簞食壺漿以迎王師)’가 혁명사(革命史)의 유일 미담이 되었거니와, 금일 혁명으로 말하면 민중이 곧 민중 자기

를 위하여 하는 혁명인 고로 ‘민중혁명(民衆革命)’ 이라 ‘직접혁명(直接革命)’ 이라 칭함이며, 민중 직접의 혁명인 고로 그 비등 팽창의 열도가 숫자상 강약 비교의 관념을 타파하며, 그 결과의 성패가 매양 전쟁학상의 정궤(定軌)에 일출(逸出)하여 무전무병(無錢無兵)한 민중으로 백만의 군대와 억만의 부력(富力)을 가진 제왕도 타도하며 외구(外寇)도 구축하나니, 그러므로 우리 혁명의 제일보는 민중 각오의 요구니라.

민중이 어떻게 각오하느냐?

민중은 신인(神人)이나 어떤 영웅 호걸이 있어 ‘민중을 각오’ 하도록 지도하는 데서 각오하는 것도 아니요, ‘민중아, 각오하자’ ‘민중이여, 각오하여라’ 그런 열규(熱叫)의 소리에서 각오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일체 불평·부자연·불합리한 민중 향상의 장애부터 먼저 타파함이 곧 ‘민중을 각오케’ 하는 유일 방법이니, 다시 말하자면 곧 선각한 민중이 민중의 전체를 위하여 혁명적 선구가 됨이 민중 각오의 제일로니라.

일반 민중이 기(肌)·한(寒)·고(苦)·처호(妻呼)·아제(兒啼), 세납(稅納)의 독봉(督棒), 사채(私債)의 최촉(催促), 행동의 부자유, 모든 압박에 줄리어 살려니 살 수 없고 죽으려 하여도 죽을 바를 모르는 판에 만일 그 압박의 주인 되는 강도정치의 시설자인 강도들을 격폐(擊斃)하고, 강도의 일체 시설을 파괴하고, 복음이 사해(四海)에 전하며 만중(萬衆)이 동정의 눈물을 뿌리어, 이에 인인이 그 ‘아사(餓死)’ 이외에 오히려 혁명이란 일로가 남아 있음을 깨달아, 용자(勇者)는 그 의분(義憤)에 못이기에 약자(弱者)는 그 고통에 못견디어, 모두 이 길로 모여들어 계속적으로 진행하며 보편적으로 전염하여 거국일치의 대혁명이 되면, 간활잔포(奸猾殘暴)한 강도 일본이 필경 구축되는 날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민중을 환성(喚醒)하여 강도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민족의 신생명을 개척하자면 양병(養兵) 10만이 일척(一擲)의 작탄(炸彈)만 못하며 억천장 신문·잡지가 일회 폭동만 못할지니라.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발생치 아니하면이거니와, 이미 발생한 이상에는 마치 현애(懸崖)에서 굴리는 돌과 같아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아니하면 정지하지 않는 것이라, 우리 이왕의 경과로 말하면 갑신정변(甲申政變)은 특수세력이 특수세력과 싸우던 궁중 일시의 활극이 될 뿐이며, 경술 전후의 의병들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대의(大義)로 격기(激起)한 독서계급의 사상이며, 안중근(安重根)·이재명(李在明) 등 열사(烈士)의 폭력적 행동이 열렬하였지만 그 후면에 민중적 역량의 기초가 없었으며, 3·1운동의 만세소리

에 민중적 일치의 의기(意氣)가 별현(瞥現)하였지만 또한 폭력적 중심을 가지지 못하였도다. ‘민중(民衆)·폭력(暴力)’ 양자의 그 하나만 빠지면 비록 굉렬장쾌(轟烈壯快)한 거동이라도 또한 전뢰(電雷)같이 수속(收束)하는 도다.

조선 안에 강도 일본의 제조한 혁명 원인이 산같이 쌓이었다. 언제든지 민중의 폭력적 혁명이 개시되어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구축하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 “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하고야 말지니, 이는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활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혁명의 기록은 자연히 참절(慘絶) 장절(壯絶)한 기록이 되리라. 그러나 물러서면 그 후면에는 흑암(黑暗)한 함정(陷穽)이요, 나아가면 그 전면에는 광명한 활기니, 우리 조선민족은 그 참절 장절한 기록을 그리면서 나아갈 뿐이니라.

이제 폭력 — 암살·파괴·폭동 —의 복적물을 대략 열거하건대,

- ① 조선총독 및 관공리
- ②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 ③ 정탐노(偵探奴)·매국적(賣國賊)
- ④ 적의 일체 시설물

이외에 각 지방의 신사(紳士)나 부호가 비록 현저히 혁명운동을 방해한 죄가 없을지라도 만일 언어 혹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완화(緩和)하고 중상하는 자는 우리의 폭력으로써 대부(對付)할지니라. 일본인 이주민은 일본강도정치의 기제가 되어 조선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선봉이 되어 있으니 또한 우리의 폭력으로 구축할지니라.

5

혁명의 길은 파괴부터 개척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만 하려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것이니, 만일 건설할 줄을 모르면 파괴할 줄도 모를지며, 파괴할 줄을 모르면 건설할 줄도 모를지니라. 건설과 파괴가 다만 형식상에서 보아 구별도리 뿐이요, 정신상에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이를테면 우리가 일본 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이

제일은 이족통치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조선’ 이란 그 위에 ‘일본’ 이란 이족 그것이 전제(專制)하여 있으니, 이족 전제의 밑에 있는 조선은 고유적 조선이 아니니, 고유적 조선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족통치를 파괴함

이니라.

제이는 특권계급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조선민중’이란 그 위에 총독이니 무엇이니 하는 강도단의 특권계급이 압박하여 있으니, 특권계급의 압박 밑에 있는 조선민중은 자유적 조선민중이 아니니 자유적 조선민중을 발견하기 위하여 특권계급을 타파함이니라.

제삼은 경제 약탈제도를 파괴하자 함이다. 왜? 약탈제도 밑에 있는 경제는 민중 자기가 생활하기 위하여 조직한 경제가 아니요, 곧 민중을 잡아먹으려는 강도의 살을 찌우기 위하여 조직한 경제니, 민중생활을 발전하기 위하여 경제 약탈제도를 파괴함이니라.

제사는 사회적 불평균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약자 이상에 강자가 있고 천자(賤者) 이상에 귀자(貴子)가 있어 모든 불평균을 가진 사회는 서로 약탈, 서로 박삭(剝削), 서로 질투 구시(仇視)하는 사회가 되어, 처음에는 소수의 행복을 위하여 다수의 민중을 잔해(殘害)하다가 말경(末竟)에는 또 소수끼리 서로 잔해하여 민중 전체의 행복이 필경 숫자상의 공(空)이 되고 말뿐이니, 민중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불평균을 파괴함이니라.

제오는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하자 함이다. 왜? 유래(遺來)하던 문화사상의 종교·윤리·문학·미술·풍속·습관 그 어느 무엇이 강자가 제조하여 강자를 옹호하던 것이 아니더냐? 강자의 오락에 공급하던 제구(諸具)가 아니더냐? 일반 민중을 노예화하던 마취제가 아니더냐? 소수 계급은 강자가 되고 다수 민중은 도리어 약자가 되어 불의(不義)의 압제를 반항치 못함은 전혀 노예적 문화사상의 속박을 받은 까닭이니, 만일 민중적 문화를 제창하여 그 속박의 철쇄(鐵鎖)를 끊지 아니하면, 일반 민중은 권리 사상이 박약하며 자유 향상의 흥미가 결핍하여 노예의 운명 속에서 윤회(輪廻)할 뿐이다. 그러므로 민중문화를 제창하기 위하여 노예적 문화사상을 파괴함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고유적 조선의’ ‘자유적 조선민중의’ ‘민중적 경제의’ ‘민중적 사회의’ ‘민중적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족통치의’ ‘약탈제도의’ ‘사회적 불평균의’ ‘노예적 문화사상의’ 현상을 타파함이니라. 그런즉 파괴적 정신이 곧 건설적 주장이라, 나아가면 파괴의 ‘칼’이 되고 들어오면 건설의 ‘기(旗)’가 될지니, 파괴할 기백(氣魄)은 없고 건설할 치상(癡想)만 있다 하면 5백년을 경과하여도 혁명의 꿈도 꾸어보지 못할지니라. 이제 파괴와 건설이 하나요 둘이 아닌 줄 알진대, 민중적 파괴 앞에는 반드시 민중적 건설이 있는 줄 알진대, 현재 조선민중은 오직

민중적 폭력으로 신조선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 세력을 파괴할 것뿐인 줄을 알진대, 조선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 네가 망하지 아니하면 내가 망하게 된 ‘외나무다리 위’에 선 줄을 알진대, 우리 2천만 민중은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니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휴수(携手)하여 부절(不絶)하는 폭력 — 암살 · 파괴 ·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剝削)치 못하는 이상적(理想的)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1923. 1.>